

주요 내용

1/4분기 경제성장률의 특징 및 향후 전망

□ 1/4분기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

- 수출과 설비투자, 민간소비 등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1/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12.8%를 기록, 99년 2/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함

□ 특징 및 현재 경기 평가

- (성장속도의 둔화)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(건설 투자 부진 속에 수출·설비투자가 성장 주도)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는 모습을 보임
- (현재 경기 평가) 성장 속도의 둔화로 경기 과열 우려는 소멸

□ 하반기 이후 경제 교란 요인

- (경상수지 흑자 축소) 과거 2년 간 흑자를 가져왔던 요인들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임.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임
- (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) 단기 자금 부동화의 장기화 인한 신용 경색 우려
- (금융구조조정의 지연 우려) 부실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
- (국제 고유가의 지속) 물가 상승 압력 증대 및 기업 생산비용 증대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□ 향후 전망 : 하반기 이후 경기 급락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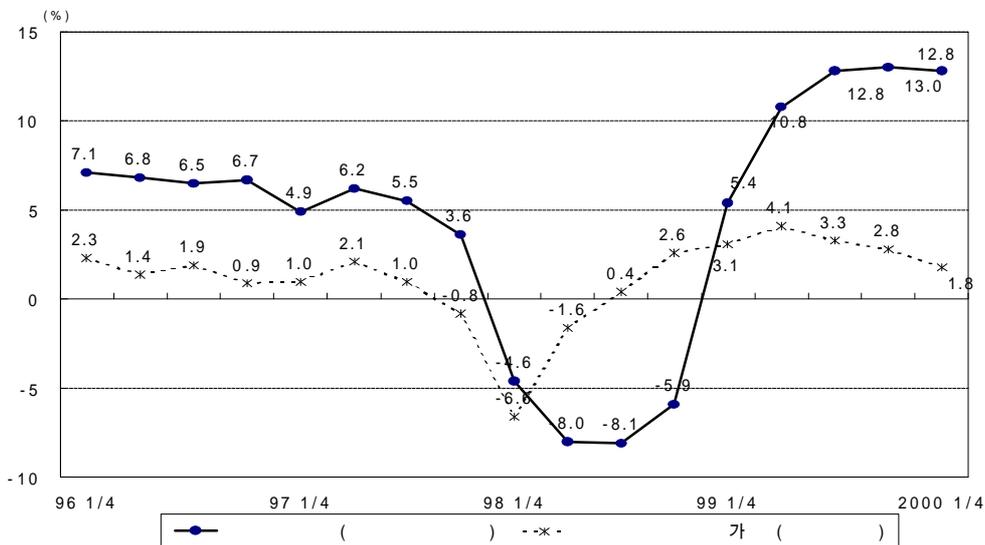
-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
- 특히, 내년 이후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,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 상실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부문이 소멸할 경우 경기 급냉 가능성 존재

1/4분기 경제성장률의 특징 및 향후 전망

1/4분기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

- 수출과 설비투자, 민간소비 등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1/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12.8%를 기록, 99년 2/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함
-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1/4분기 국내총생산(잠정)에 따르면 1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작년 동기대비 12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98년 중 -6.7%의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99년 2/4분기 이후 10%이상의 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-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23.0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. 특히 반도체, 통신기기,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부문이 26.7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

< 경제성장률 추이 >



특징 1: 성장 속도의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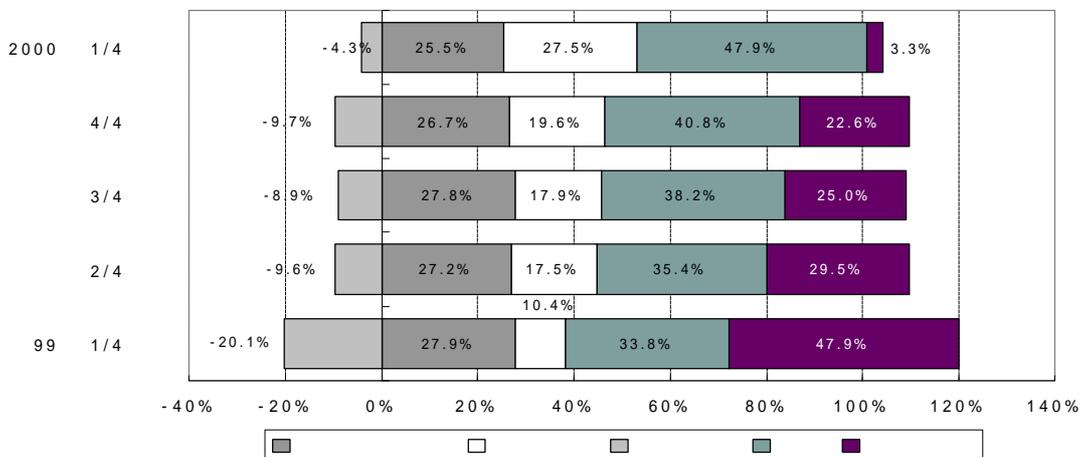
-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99년 4/4분기의 13.0%에 비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
- 또한 전분기 대비 계절변동조정 실질 GDP 증가율도 99년 1/4분기 3.1%, 2/4분기 4.1%, 3/4분기 3.3%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/4분기(2.8%)에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올해 1/4분기에는 1.8%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

특징 2: 건설 투자 부진 속에 수출·설비투자가 성장 주도

- 1/4분기 중 경제 성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보임
- 수요면에서는 설비투자가 63.6%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11.2% 늘어난 가운데 수출이 25.1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주도
- 성장기여율을 보면 수출이 47.9%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27.5%, 민간소비가 25.2%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음
- 99년 중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던 재고투자는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기여율이 현저히 하락함

<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율 추이 >



- 반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
-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이 (-)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외환위기 이전의 75% 수준에 불과함

- 99년 중 -10.1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건설업 생산도 1/4분기 들어 -7.8%의 증가율을 기록, 감소세가 이어짐
- 전분기 대비 증가율에서도 설비투자 및 수출은 각각 46.4%, 9.0% 증가하여 성장세를 이끈 반면 건설투자는 -0.7%를 기록, 하락세가 이어짐

< 부문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(계절조정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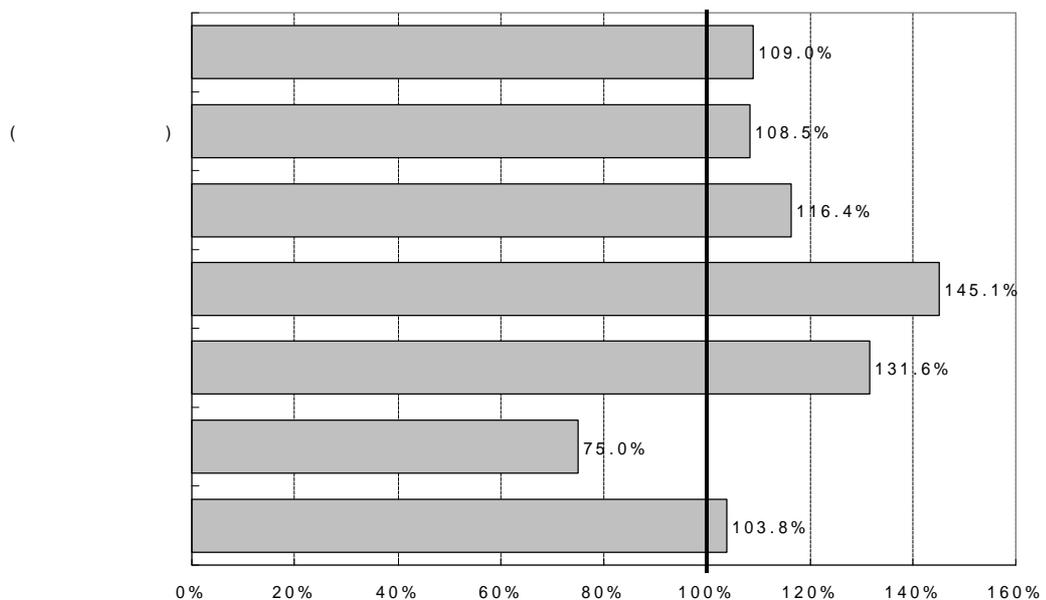
(%)

부문	GDP	민간소비	설비투자	건설투자	수출	수입
전분기대비 증가율	1.8	2.4	46.4	-0.7	9.0	10.7

현재 경기 평가: 성장 속도의 둔화로 경기 과열 우려는 소멸

- 현재의 경제 성장은 소비보다는 수출 및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성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어 경기 과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님
- 수요 부문별 계절조정 GDP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GDP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3/4분기의 109.0% 수준이며 재고 변동을 제거한 총 수요(소비+투자+수출-수입) 수준은 108.5% 수준으로 나타남

< 부문별 외환위기 이전(97년 3/4분기)과의 비교 >



주: 계절조정치를 이용한 비교임.

-
- 그런데 민간소비는 97년 3/4분기의 103.8%인 데 반해 수출 및 설비투자는 각각 146.1%, 131.6%로 소비 과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

하반기 이후 경제 교란 요인

- (경상수지 흑자 축소) 과거 2년 간 흑자를 가져왔던 요인들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임
 - 98년과 99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하의 환율 폭등, 수요 급감을 들 수 있음
 - 원화 환율의 하락, 국제 금리 상승 가능성,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증가로 인한 수입 유발형 구조의 심화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쉽지 않을 것임
 -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임
- (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)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한 신용 경색 우려
 - 올해 들어 200조 원 이상까지 증가한 단기성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신용 경색을 발생시킬 우려가 큼
 -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 발행이 하반기에도 힘들어질 경우 기업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임
- (금융구조조정의 지연 우려) 부실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
 -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 규모는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급증할 수도 있으며, 무엇보다도 전체 부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
 - 투신권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체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될 것임
- (국제 고유가의 지속) 유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나 도입 단가 평균은 99년보다 7달러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
 - 고유가의 지속은 물가 상승 압력 증대 및 기업 생산비용 증대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

< 하반기 이후 경제 교란 요인 및 그 영향 >

교란 요인		영향
경상수지 흑자 감소	→	대외신인도 악화
금융불안의 지속		신용 경색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가중
금융구조조정의 지연		금융 부실 악화 외국인 투자자 불안
고유가의 지속		물가 상승 압력 무역수지 악화

향후 전망 : 하반기 이후 경기 급락 가능성

-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
- 3월 이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도소매 판매 및 투자 지표들의 증가세 둔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2/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
- 또한 1/4분기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부분 99년 1/4분기의 낮은 성장률(5.4%)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임을 감안할 경우 2/4분기 이후 성장률은 두자리 수 이상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임
- 향후 경기를 가늠케 하는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99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
- 특히 내년 이후 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, 환율 절상 등에 의한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 상실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부문이 소멸할 경우 경기는 급냉할 가능성이 있음

(이보성 연구위원 bslee@hri.co.kr ☎ 3669-4021)